

제 3 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워치만 니

제3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워치만 니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권리는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3월 25일

ISBN 89-8478-209-2 04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 차

서문 · 5

제1장 두 종류의 생활 원칙—생명의 원칙, 옳고 그름의 원칙 · 7

제2장 교회를 건축하는 길 · 23

제3장 말씀을 기도로 읽기 · 35

주님의 두 종에 관하여 · 43

서문

이 책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는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세 권의 소책자—워치만 니의 <두 종류의 생활 원칙>, 위트니스 리의 <교회를 건축하는 길>과 <말씀을 기도로 읽기>—로 이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 1 장
**두 종류의 생활 원칙—
생명의 원칙, 옳고 그름의 원칙**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마 17:3).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전 4:3-4).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 2:9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곧 사람의 양식 문제를 생각하셨습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요,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사람을 지으셨고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위해 음식을 의존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이 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행 17:28).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나무를 사용하여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보여 주며, 사람이 생명 아니면 선과 악의 지식에 의해 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창세기 2장의 두 나무에 관해 읽었지만, 우리는 이 두 나무가 우리에게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두 종류의 다른 원칙에 의해 살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원칙 아니면 생명의 원칙에 의해 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의 원칙을 그들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원칙을 그들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두 종류의 다른 생활 원칙을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생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에게는 두 나무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의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를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생활 원칙

여기에서 나는 이 두 가지의 원칙 외에 또 다른 생활의 원칙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생활의 원칙은 바로 죄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는 적어도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의해 살거나, 옳고 그름에 의해 살거나, 아니면 생명에 의해 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대의 풍습에 얽매인 진노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운행하는 악한 영에 따라 살고 행합니다. 그들의 생활 원칙은 죄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엡 2:1-3). 여기서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의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 죄의 원칙 외에 두 나무가 대표하는 두 종류의 생활 원칙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어떤 이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의해,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의 원칙에 의해 삽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죄의 원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원칙에 의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원칙은 기독교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이지 어떤 표준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이곳에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후, 여러분 속에는 매우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생활의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생명의 원칙을 한쪽에 제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옳고 그름의 원칙에 통제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마다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사실상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자주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옳고 옳은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인지 고려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 2:17). 이러한 실행은 기껏해야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선은 택하고 악은 거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밖에 선악의 표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였을지라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이고 율법이며 세상의 종교와 사람의 도덕과 윤리(倫理)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근거함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곧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일에 대하여 옳은가 그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속의 생명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기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만 밖에 있는 선악의 표준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표준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십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시내 산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계명과 규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물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며 동시에 우리에게 말하는 생명이 있는지 물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옳다고 느끼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고, 내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기쁨 바름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많은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는 옳고 타당하고 선한 것이지만, 기이하게도 우리 속의 생명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차가워지고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에 근거한다고 말함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많은 세상 사람의 원칙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의 원칙

에 불과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 원칙이 옳고 그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은, 우리는 밖의 표준이나 법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사람의 윤리나 관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판이나 의견에 따라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속생명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그 생명이 힘이 나고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의 그 생명이 차가워지고 위축된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활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오직 이 생활 원칙만이 참되고, 그 외의 모든 생활 원칙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우리도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생명의 느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의 속생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실 때 비로소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 일은 옳은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일은 그릇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이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준이 선의 표준보다 높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인은 악한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악한 일과 선한 일과 생명의 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과 생명에서 나온 일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모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선과 악을 함께 둔 것에 주목하십시오. 선과 악이 한 노선이고, 생명은 다른 노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악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선도 거절해야 합니다. 선의 표준보다 더욱 높은 표준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표준입니다.

전에도 젊은 형제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말했지만,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이야기를 말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모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매우 많이 진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일의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나보다 두 살이 많은 동역자 한 분과 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관해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논쟁은 공개적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방식은 그릇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식으로 일을 하기 원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그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나보다 두 살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는 따질 수 있었지만 그가 나보다 두 살 더 많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나이 드신 한 자매님께 찾아가 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형제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판단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형제가 옳다고도 그릇되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그 형제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대답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내가 옳으면 옳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르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내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고만 하실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마땅히 주 안에서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반박하며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옳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른 경우에도, 어린 사람이 순종해야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징계의 공과를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화를 냈습니다. 그 자매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은 침례를 주기 위해 세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중 내가 가장 어렸고, 그 형제가 나보다 두 살 위였고, 또 나보다 일곱 살이나 위인 오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보다 두 살 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내가 그에게 순복해야 하지만, 오 형제님은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다. 그가 오 형제님에게 순복하는지 안 하는지 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침례를 줄지 논의했는데, 그 형제는 오 형제님의 어떤 말에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 형제는 “그냥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혼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이 형제는 자신이 나보다 연장하기 때문에 항상 나보고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자기보다 연장한 사람에게 전혀 순종하지 않다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시 나는 그 자매님에게 가서 이 일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은 옳고 그름에 전혀 주의하지 않으셨고, 나는 그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은 일어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까? 형제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자신은 옳고 그 형제는 그르다고 말하니,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는 계속해서 그 일에서 자신의 옳음을 말하였지만, 나는 십자가의 생명을 계속 말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옳고 그름에 관해서만 따지고 있었지, 아직 생명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매님은 나에게 “형제는 이렇게 행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이 옳을지 모르지만, 형제는 내적으로 어떻게 느끼니까? 내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유를 따지자면 옳을지 모르지만 속생명에 따라서는 그릇되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표준은 악한 것을 처리할 뿐 아니라 선하고 옳은 것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옳지만, 신성한 기준은 그 일에 신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르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날에 나는 처음으로 빛을 보았고, 그날 이후

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활이 생명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자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다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하며 내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옳다고 말하고 우리도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는지 아니면 시드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기쁨 바름을 느끼니까, 아니면 침체됨을 느끼니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올바른 노선에 있다는 느낌이 증가하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우리가 그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니까? 생명은 외적인 옳고 그름에 따라 결정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인가 아니면 사망의 느낌인가, 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가 아니면 시드는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일이 매우 좋고 옳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내적인 느낌은 어떠한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내적으로 기쁨을 느끼는가? 나에게 영적인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가?”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길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오너 오크(Honor Oak)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나와 함께 손님으로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오너 오크에 대해 많이 비평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좋은 설교자였으며, 오너 오크에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점들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지방이 오너 오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던 두세 달 동안,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오너 오크에 대해 훨씬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기에, 나는 “오너 오크가 그렇게 나쁘다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이곳에 머물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머물기를 원해요. 내가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나의 마음의 평강 또한 떠납니다. 한번은 이 주 동안 이곳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형제님은 생명의 길과 옳고 그름의 길, 두 길을 발견하였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차례, 어떤 때에는 하루에 세 번씩이나 방에 들어가 짐을 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떠나려고 할 때 내 속의 느낌은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 그릇되었다고 느끼지만 내가 떠나는 것도 그르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곳에 영적 도움이 되는 것이 많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옹고 그림의 문제가 아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분의 자녀를 관리하십니다.

외적인 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장 큰 과실은 그들이 본 것에 따라 옹고 그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경에 따라 다년간의 체험에 근거하여 옹고 그림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 참으로 옹고 무엇이 참으로 그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함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유한 것은 다만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에 따라 옹고 그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떠나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 옳은 일이고, 반대로 내적인 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은 다 그른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밖의 표준으로 어떤 일을 옳다 하거나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형제들이 수고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그곳의 일이 완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묻는다면, 나는 아직 개선할 점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게 내게 “형제님이 보시기에 고쳐야 할 일이나 완전치 않은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나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상했습

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화가 났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조정이 필요한 외적인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방문한 또 다른 지방에서 형제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원칙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만 잠잠히 비켜 서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원칙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차이는 매우 확연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그른 일인지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속의 주님의 생명이 끓어오르는가, 위축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외적인 도덕의 표준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었고, 외적인 인간의 표준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마 17:3). 우리는 모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함을 알 것입니다. 율법의 표준이 있었고, 선지자의 표준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말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생활의 표준은 더 이상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표준은 그리스도 자신, 곧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문

제는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에 있지 않고, 내 속의 생명이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생명이 우리가 동의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신성한 생명이 만족해야 함

벼농사를 짓고 있던 두 형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눈은 산 중턱에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은 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더운 낮에 눈에 물을 대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 눈의 주인은 그들이 잠자는 틈을 타서 그들의 눈독에 구멍을 내어 형제들의 눈에 있는 물을 자기 눈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이튿날 이 일을 발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에 물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용히 인내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연이어 칠 일 동안 계속 일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왜 밤에 지켜보고 있다가 도둑을 붙잡아 혼을 내주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참았습니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날마다 눈에 물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수차례 그 물을 도적질해 가도 조용히 인내했기 때문에, 매우 즐겁고 기쁘고 승리에 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이 날마다 물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물을 훔쳐 가는 것을 인내하며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일에서 체험이 많은 어느 형제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이미 일주일도 넘도록 인내했는데도 왜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훔쳐 가는 것을 참고 인내했는데, 왜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강이 없지요?” 체험이 많은 형제는 그들에게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인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제님들은 물을 훔친 사람의 눈에 먼저 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형제님들의 눈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좋다고 하고 이튿

날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그들의 논의 물을 흠친 사람의 눈에 먼저 물을 채운 후에 그들의 눈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논의 물을 흠친 사람의 눈에 물을 채우던 그 반나절 동안 그들의 마음은 갈수록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눈에 물을 다 채운 후에는 마음속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래 논의 사람이 물을 흠치든, 흠치지 않든 마음속이 아주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이삼 일이 지났을 때 논의 물을 흠쳤던 사람은 그 두 형제에게 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참 놀랍습니다. 나도 가서 복음을 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옳고 그름으로 말하자면 참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루 종일, 그것도 아주 더운 날에 물을 채웠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 단순한 시골 농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사람들은 선하고 옳으면 족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일을 할 때려야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길과 생명의 길의 차이점입니다. 일이 옳은가 그른가만 구분하면 족하지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옳은 것에 만족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하게 하는 데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옳은 일을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남에게 뺨을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욕을 하지 않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깊은 수양을 쌓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뺨을 맞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속생명을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 꺾도 돌려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화내지 않고 이러한 대우를 또다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겸손합니다. 생명은 능히 다른 쪽 꺾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매우 어려워져서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고 말해 줍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만족되고 해방되고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길을 걷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옳고 그름의 원칙 아래서 판단하고 타고난 생명으로 살고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적으로 생명이 충만해야 함

때때로 우리는 정말 엉뚱하게 행동하는 형제를 만납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마땅히 그를 권면하거나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람을 엄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며칠 여기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를 권면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는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 점점해 봅니다. ‘그가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그에게 권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운이 빠져 다시 손

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할지라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허락하는가, 허락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람을 권하려고 할 때 그는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은 말할수록 기운이 빠지게 되고 결국 집에 돌아가서는 자신이 그릇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권면하는 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속이 생명으로 충만되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빈곤한 어떤 형제를 만났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내가 그를 도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 나도 그리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희생을 하며 내 힘에 겹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이므로 그렇게 할 때 나는 마땅히 기뻐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돈을 줄 때 내 속에서 힘이 빠지고 이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네 의(義)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천연적인 좋은 의이지 생명이 아니다. 네 스스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하여 이삼 주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인도에 따라 살고 행해야 함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은 선과 악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은 모두 가치가 있지만, 생명이 없이 한 일은 모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내적인 정죄를 우리에게 가져다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그가 행한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활 원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속한 것과 사망에 속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약동함으로 한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내 속의 생명이 약동하지 않을 때, 내게 기쁨 바름이 없을 때 행한 일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4장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적인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 이로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밖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고 그름의 표준에 따라 행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 말은 옳고 그름의 표준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옳고 그름의 표준은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옳고 그름의 표준보다도 뛰어난 생활입니다. 그른 일은 그른 것이지만 옳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사람의 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일에서 다만 이것을 물어보면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 속에 자연히 빛이 비칠 것입니다. 거듭남이 하나의 사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계속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주여, 제게 은혜를 베푸사 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의해 살게 하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생명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저는 생명의 느낌이 어떠한지 항상 묻기 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칙 아래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표준만 있기 때문이고, 많은 실수가 있는 까닭은 생명의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표준이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

주여, 우리는 참으로 당신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은 빈 그릇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것이 옳고 그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안의 생명의 인도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께 묻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에 속한 것과 육체에 속한 것의 차이를 보게 하시고 내적인 빛과 외적인 율법의 차이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구원 하소서. 주여,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함으로 사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죄요, 사망임을 보여 주소서. 그것은 오직 사망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철저히 보여 주소서. 우리가 여러 번 이것을 말해 왔지만 지금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말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율법인지 알려 주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2 장 교회를 건축하는 길

성경 : 엡 3:14-19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의 자격을 가져야만 하고, 둘째로 교회를 통하여 사탄은 패배당하고 부끄럼당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가 그분의 생명을 충만히 얻는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이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넣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생명을 통해 만물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통일됩니다.

먼저는 생명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건축이 있습니다. 건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생명의 합당한 질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건축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정사나 권세들에게 그분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할 근거를 얻으시게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있는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창조의 중심이며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것을 이 사람 속에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어떠한이나 아버지의 소유는 모두 그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다음 우리를 거둬 나게 하시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를 낳으심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전구의 필라멘트와 같습니다. 전구에 필라멘트가 없으면 전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구는 전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필라멘트가 필요하며 또한 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라멘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외적인 모양인 것같이 전구 또한 외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전구의 외적 형태 속에 전기를 받아들이고 담고 표현하는 필라멘트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몸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담고 표현하도록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전 존재로 확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바깥에서 사람 속으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의 영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사람의 내적 존재 모두를 적시고 침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생각, 감정, 의지를 흠뻑 적시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전존재를 적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오셨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전 존재에 확산하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장성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그때에는 우리 몸까지도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모두는 단체적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질서 안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단체의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머리이시고,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질서 안으로 이끌린 그분의 몸입니다. 이때 이 몸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사람을 빗나가게 하는 대적의 간교함을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불신자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과 교회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대적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 음식, 물, 의복, 거처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미혹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 방식과 더불어 음식과 안식처와 의복에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표적에서 빗나가, 물질적인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만 사람의 생존을 위해 준비하신 물질적인 것들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사탄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도록 그것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약을 통해 어떤 영적인 지식을 주시고 그분의 율법과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구약조차도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의해 그리스도에게서 얼마나 많이 빗나갔는지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대적의 간교함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성경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조차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올 때 더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심지어 신약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소위 은사들과 가르침으로 빗나가게 했습니다. 만약 우

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주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탄에게 이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교회들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여길 것입니다.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으로부터 다른 것들로 빛났습니다. 근본적인 기독교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만약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들을 용서받고 어느 날 우리는 하늘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넣는 역사를 하시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통하여 표현되시고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상은 근본적인 기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죽은 후 어느 날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련합니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몇몇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중심 사상을 소홀히 합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음식과 물과 집과 직업, 그리고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마 6:31-33).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수년간의 체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관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관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또한 성경과 은사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있으며, 모든 가르침과 사역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주요한 서신인 에베소서에는 물질적인 것이나 지식이나 은사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4장에서 언급된 은사들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입니다. 방언과 병 고치는 것과 다른 영적 은사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지식이나 은사들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지 그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외적인 분이 아니라 내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계시다’라는 단어는 ‘집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집을 만들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혼 전체와 영의 한 부분인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에 더하여 양심까지 포함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나 지식이 아니며 은사나 어떤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성령의 인 침을 언급합니다(13절). 성령은 도장으로서 우리 안으로 찍히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럴 때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사람이 있게 됩니다(15절).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과 같이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산출된 실체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한 부분이요, 아담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새사람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요, 그분에게서 취해졌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거처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며, 4장에서는 3

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체험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길 안에서만 우리는 결코 교리나 가르침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이단의 풍조라고 말하지 않고 교리의 풍조라고 말한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르침의 풍조에 의해 떠내려가서는 안 되며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을 때 다른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 지식에 굶주렸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 지식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 단체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육칠 년이 지난 후, 중국 북쪽의 나의 고향에는 ‘영적 은혜 운동’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매우 영향력이 있어서 중국 북부를 뒤흔들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운동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많은 방언과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곳의 상황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들이 결코 주님의 몸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지식으로 건축될 수 없고, 은사나 소위 초자연적인 증거들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에베소서 2장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으나, 체험을 통하여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건축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건축될 수 있으며, 어떤 지식이나 은사로는 건축될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은사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이런 것으로는 교회가 건축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이 책에는 은사나 지식에 관한 언급이 없고, 우리 마음 안에서 집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은사나 지식, 기적이나 표적을 위한 약간의 입지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주된 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지식과 은사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어떤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에베소서의 거의 모든 장들이 이 일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핵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을 간과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실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성경의 심장이며, 이 책의 심장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명한 이상을 얻기 위하여 14절부터 시작하여 다시 이 구절들을 읽어 봅시다. 사도는 '이러하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하므로'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표현되시고 그분의 지혜를 대적에게 알리시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기 위해 교회가 그분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속사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영인 속사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믿기로 솔직한 사람들은 그들의 혼이 가장 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혼도 또한 세 부분,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세 부분 중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합니까? 나는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가장 강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강하며 우리의 영은 아주 약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습니다. 만약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강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기도합시다.”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조용할 것입니다. 즉시로 그 방은 공동모지처럼 조용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원인은 우리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사도 바울은 가볍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를 위하여 그는 우리가 속사람 안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담하고 논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생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필요 이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여전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세포가 과도하게 발전될 때 그것은 암이 되고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잡담과 논쟁을 기도로 바꾼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고와 상상과 이해와 관념을 잊어버리고 다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헬라이어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생각을 돌이키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킴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양심이 사용되어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자백해야 하는지 증언해 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자백함으로써 우리는 양심을 사용합니다. 생각과 양심이 마음의 주요한 두 부분입니다. 마음이 영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마음의 두 주요 부분인 생각과 양심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열리게 되어, 주님은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더 많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감정도 뒤따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도 주님을 추구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자유롭게 되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살아 계신 영이신 주님은 우리의 영을 채우고 강화시키실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집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화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 안에서 점 점 그분의 집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우리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양심이 활동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 안에 감금되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감금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그분께 돌이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추구하기를 바라는지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채우고 강화시키시도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의 집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거처와 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뿌리가 박히고’와 ‘터가 굳어져서’라는 표현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의미하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우리가 자라고 건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지 혼자만이 아닌 단체적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강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시도록 할 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식으로 함께 건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논쟁과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가질 때 지식과 분열과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잊게 되고, 다만 “오 주여, 저에게 공활을 베푸소서. 저는 지금 당신이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충만되어 있지만 당신이 부족합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집을 만드실 때만 그분께

서 우리의 모든 내적 존재의 부분들을 점유하실 것이며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건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적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지 깨닫기 위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건축됩니다. 넓이는 얼마나 넓습니까? 길이는 얼마나 길며 높이와 깊이는 또 얼마나 높고 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차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넓이요, 길이요, 높이요, 깊이이십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성경 지식이나 소위 영적 은사로 충만되지 말고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몸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몸의 생활을 말할지라도 전혀 실재가 없는 것입니다. 몸의 생활의 실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적 체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밝아질 때까지 이 구절들에 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은사나 표적 따위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입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집을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해야만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건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4장으로 넘어갈 때 '그러므로' 라는 첫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미 언급한 것을 기초로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4장이 몸의 생활과 몸의 건축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결코 직접 몸을 건축하시지 않고,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같은 은사 있는 자들을 통하여 몸을 건축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은사 있는 자들도 직접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깨닫도록 자라게 하고 모든 것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게 합니다. 한 면으로 그리스도는 그들의 전존재를 점유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집을 만드실 것이고, 다른 면으로 그들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에

게서 어떤 것을 공급받고 또 그것을 서로서로 함께 나눌 것이고, 이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의해서만 그들은 몸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입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은사를 분배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함으로써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고 그분 안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장을 주의 깊게 읽고 그것에 대해 주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이것이 교회 건축의 유일한 길임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것은, 교회는 지식이나 은사로 건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분열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체험에 의해서만 교회 생활의 실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집을 만드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모두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제3장

말씀을 기도로 읽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하여 젖을 먹는 일입니다. 영양분이 없으면, 태어난 아기가 잘 자랄 수 없을 뿐 아니라 약해지고 죽기까지 합니다.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우리의 영적인 젖과 양분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이 영적 양분이 없으면 잘 자랄 수 없고 얼마 안 가서 영적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주님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이시라고 말하며, 6장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은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영적 양분으로 누리며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잔치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로 ‘나는 …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나는 …이다’ 이십니다. 즉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식임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속합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

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언급된 ‘신령한 젖’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말씀의 젖’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맛보는 길을 분명히 말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을 맛보려면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양분을 섭취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맛보았으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이런저런 면을 ‘알라’ 하시지 않고 ‘맛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을 때, 주님을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맛보는 길은 단순히 말씀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연구하거나 배우라고 주시지 않고 맛보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몸을 양육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에 의해 양육되려면 주님을 맛보기 위해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지식으로 가득한 교훈의 책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이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배우고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의 나무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문자(文字)로 된 책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을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고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성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분이 음식처럼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믿음의 말씀 …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

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기지 말고, 항상 우리를 양육하고 공급하는 음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에 관해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여기에서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교훈이 아니라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만 ‘바른’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고 공급하는 ‘건강한’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세 가지 사례를 보여 줍니다. 그 첫째 예(例)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렘 15:16)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그것을 안에 받아들여 소화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둘째 사례는 에스겔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겔 3:1-3).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볼 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렘 15:16)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누림이며, 말씀은 우리가 먹은 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릴 수 있으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된 후에는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되고 우리 밖으로는 즐거움이 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 119:103)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누릴 만하며, 심지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배울 뿐 아니라 더욱 맛보고 먹고 누리고 소화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영적 양식이며, 우리는 그 양식으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영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성분입니다. 책상의 본성이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내신 것은 다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분과 본성은 영입니다. 사상(思想)이나 계시(啓示)나 교훈이나 이론이 아닌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훈 따위는 결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접촉할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취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이 곧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육과 기쁨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17절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계속되는 18절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구절을 합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도로 읽기’입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하

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방법

단순히 말씀 몇 구절만을 아침저녁으로 기도로 읽어 보십시오. 어떤 말을 지어내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읽은 것을 꼼꼼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살아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주목하며 기도하십시오. 성경 육십육 권 어디에서도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요 17:1)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에 관해 논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생각을 감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인쇄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목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런즉’, 아멘. ‘그런즉’, 아멘. ‘이제는’, 오 주여!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눈을 성경을 주목하면서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아멘! ‘내가 온 것은’,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 아멘! ‘생명’, 오 주여! ‘생명.’”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에는 어떤 문장을 지어내거나 기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읽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온 성경이 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장, 어떤 구절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책이요, 거룩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성경은 그 외의 다른 모든 책,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책은 사람의 말로 되어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단 순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고 배우려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속을 강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전체에 아주 익숙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은 로마서의 한두 구절을 기도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매일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에 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오십 번 이상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 중에서 여러분의 양분과 누림이 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이 책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먹고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여러 번 요한복음을 읽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책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기도로 읽고 누리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로 말씀을 읽음

우리가 말씀을 더 기도로 읽고 누리며 말씀으로 더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몸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기도로 읽으

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삼층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몸의 한 지체만을 위해 있지 않고 온몸을 위해 있다는 뜻입니다. 팔은 단지 팔을 위해서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손이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몸 전체를 위해 음식을 먹지 어떤 지체만을 위해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가장 좋은 길은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읽는 것입니다. 혼자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도 유익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과 같이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에는 ‘신속하게’, ‘짧게’, ‘참되게’, ‘신선하게’ 이 네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생각과 사고(思考)를 사용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다음, 짧게 기도해야 합니다. 긴 기도에는 작문(作文)이 필요합니다. 긴 기도를 지어내지 말고, 다만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을 말하십시오. 그것을 신속하고 짧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참되게, 즉 가식(假飾)이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참되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신선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자신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 모든 절을 기도로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신선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옳은 길임을 수천 명의 성도가 증명해 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혁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계속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살아 계신 영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 생명의 성장과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는 이러한 길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양육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향을 이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워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워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혜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